



# 코로나19 여파 딛고 3개 공공 공연장 ‘선전’

2021년 운영 실적 집계 결과 문예회관 등 가동일 수 늘어 기획·대관 공연 건수도 증가  
아트센터·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 공연 유료 수입도 발생

제주 지역 3개 공공 공연장의 2021년 운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2020년보다 공연 건수, 관람객 수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 초반에는 방역을 이유로 공연장 운영을 중단하는 일이 많았으나 차츰 작석 띄어앉기 등으로 객석 일부를 개방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

는 제주도문예회관의 작년 대극장 가동일 수는 152일, 소극장은 140일이었다. 전체 공연 건수는 대극장 84건, 소극장 77건이었고 이 중에서 기획 공연은 12건 26회로 집계됐다. 문예회관 기획 공연의 경우 제주 지역 공연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기획 공연 프로그램을 공모한 영향 등으로 지역 단체 진입이 늘었다. 다만 기획 공연이 모두 무료로 진행되면서 별도의 관람료 수입은 없었다. 총 관람객 수는 대극장 1만3932명, 소극장 2520명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2020년 문예회관 대극장 가동일 수는 92일에 이용객 1만 560명, 소극장은 106일에 1370명이었다. 공연 건수도 대극장 42건, 소극장 45건이었고 이 중에서 기획 공연은

6건(6회)에 그쳤다.

대극장을 보유한 제주아트센터의 2021년 가동일 수는 147일로 2020년(102일)보다 늘었다. 작년 기획 공연 건수는 27건(36회), 대관 공연은 40건(63회)으로 총 관람객(온라인 비대면 포함)은 6만 8878명이다. 장르별로는 오페라를 포함한 양악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고 대중복합 공연 27%, 뮤지컬·연극 18%, 무용발레 8%, 국악 3% 순이었다. 2020년에 비해 오페라, 연극, 무용(발레) 분야가 증가했다.

제주아트센터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 무료로 기획 공연을 진행했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8회 유료 공연을 통해 총 40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다. 전년도에는 기획 공연 12건(16회), 대관 공연 38건(40회)으로 총 관람객 수

가 6만 2750명(영상 포함)이었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지난해 대극장 가동일 수가 173일, 소극장 69일에 이른다. 2020년 가동일 수는 대극장 71일, 소극장 37일이었다.

2021년 기획 공연은 30건(40회), 대관 공연은 89건(89회)으로 총 관람객은 1만 5109명이다. 기획 공연은 양악 11건, 다원 4건, 오페라·연극·무용 각 3건, 뮤지컬 2건 등이었다. 현장 관람 인원과 별개로 기획 공연의 경우 영상으로 중계된 온라인 조회수만 총 3만 4495회를 기록했다. 유료 기획 공연 수입은 13건에 총 4907만원으로 파악됐다. 2020년에는 기획 공연 13건에 관람객 360명, 대관 공연 46건에 관람객 1749명에 머물렀다. 다만 이때도 기획 공연 온라인 조회수가 1만 9342회였다.

진선희기자



‘인더노우’를 창업한 송은영(왼쪽)·김민주 공동대표가 5일 직접 개발한 프리다이빙 의류 제품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 제주 바다가 키워준 두 청년의 어떤 꿈

프리다이빙 의류 ‘인더노우’ 창업패키지 선정 제품 개발한 달간 전농로서 팝업스토어 ‘가장 제주다운 삶 바다에서’

“가장 제주다운 삶은 바다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올해 스물일곱 나이의 두 청년이 그 ‘바다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제주만의 프리다이빙을 제안하는 의류 브랜드 ‘인더노우’를 통해서다.

‘인더노우’의 송은영 공동대표는 제주 출신으로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다. 김민주 공동대표는 문화콘텐츠와 불문학을 공부했다. 제주 바다를 인연으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2년 가까이 프리다이빙에 빠져 살고 있다. 그들은 숨을 참고 바닷속으로 잠수하면서 온전히 자연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프리다이빙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제주다운 스포츠라고 했다.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갖추고 제주 바다를 누볐던 이들은 지난해 6월 창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창업패키지에 바다를 담은 패션 아이템인 ‘프리다이빙을 위한 위슬러저룩’이 선정되면서 제품 개발에 본격 나섰다. 위슬러저룩은 ‘워터’ 라이프와 생활 속 스포츠인 ‘에슬레저’가 결합된 말로 바다와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삶의 방식을 꿈꾸는 ‘인더노우’의 지향점과 닮아있다.

현재 ‘인더노우’가 제주시 전농

로에 있는 문화공간 제주아트에 펼쳐놓고 있는 팝업스토어는 그 결과물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제주 바다로 향하는 느낌이 들도록 꾸민 지하 전시장에는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바다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스웨트shirt 등을 전시·판매하고 방문객들이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더노우’는 여성 프리다이빙을 주 고객으로 삼았다. 언제든 원할 때 바다로 나가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입고 벗기가 편한 수영복만이 아니라 일상복으로도 가능하도록 디자인했다. 프리다이빙을 위해 제주 바다를 오가면서 해양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고 있는 두 사람은 친환경 소재 의류나 업사이클링 제품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전시장에 나온 바람막이 재킷은 페넨트를 활용했다.

지난달 22일 팝업스토어 오픈 이후 지금까지 행사장을 찾은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 5일 제주아트에서 만난 송은영·김민주 공동대표는 “그동안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다 이번에 처음 오프라인으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재미있는 콘텐츠와 이벤트로 제주 바다를 즐기는 방법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전시는 이달 22일까지(일요일 휴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인더노우’ 공식 SNS(인스타그램 @intheknow.official) 등에서 관람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진선희기자

## 제주 예술계 스승과 맺은 깊은 인연

24주기 소암 추모전 두 번째 공예가 양승필·고원종 참여

제주 두 공예가의 작품이 서귀포 출신 서예가 소암 현중화(1907~1997) 선생이 머물던 자리에 놓였다. 소암기념관이 ‘소암묵연(素菴墨緣)’ 깎고·빚고·쓰다’를 주제로 진행 중인 24주기 소암 추모전 두 번째 전시다.

지난달 28일 막이 올라 새해 2월 6일까지 계속되는 이 전시에는 양승필·고원종 두 명의 작가가 함께하고 있다. 서예가를 넘어 제주 예술계의 큰 스승으로 폭넓은 분야의 예술인들과 나누었던 인연을 조명하기 위

해 기획된 자리다.

목공예가 양승필은 소암이 서귀중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제자로 목공예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소암과 더 가깝게 만났다. 현재 기념관 내 소암의 작업실인 ‘조범산방’에 남아 있는 가구 중 다수가 그의 작품이다. 추모전에는 사오기(벗나무) 등 오래된 제주목을 이용한 기품 있는 가구와 목공예품을 내놓았다.

도예가 고원종은 젊은 시절 소암과 함께 생활하며 서예를 배웠고 소암의 작품을 서각과 전각으로 작업한 일이 있다. 전통 분청사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이어온 고원종 작가는 단아하면서도 힘 있는 향아리, 병, 장군과 더불어



‘소암묵연 깎고·빚고·쓰다’ 추모전.

소암의 글씨를 새긴 다기를 선보이고 있다.

세 사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청사기 작품도 나왔다. ‘大圓鏡上絶親疎’(대원경상절친소, 등글고 큰 지혜의 자리에는 가깝고 멀게 지내는 것이 없다)란

글씨가 담긴 향아리다. 낙관을 보면 무진년(1988년)에 소전(고원종의 호)이 만든 작품에 소암이 글귀를 써서 서호(양승필 작가)에게 선물로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관람 가능일 등 소암기념관 홈페이지 참고.

진선희기자

갤러리 뱅디왓 새해 전시 문흥전 서예작품전 첫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내 갤러리 뱅디왓의 새해 첫 전시는 서예 전시다. 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이

달 4일부터 ‘아름다운 길을 거닐다’란 이름 아래 문흥전 서예 작품전을 열고 있다.

문 서예가는 한글사랑서예대전 초대작가, 제주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제주서예대전 초대작가다. 이번 전시에는 ‘자화상’, ‘친구 생각’,

‘갈대도 길은 있다’ 등 2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문 서예가는 “작품 하나하나가 전달하는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자연과 순응하지 못한 인류의 불행성을 통해 더 나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전시는 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한편 지난 연말 선착순 대관 접수를 통해 올 한 해 갤러리 뱅디왓에서 진행 예정인 전시는 회화, 공예, 사진 등 개인·단체 주관 총 12건이다. 문의 710-7704.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35년 전통의 산호당구재료

그동안 여러분의 고마움과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당구용품의 가격을 **할인 판매** 실시합니다.

**개인용품**들도 다양하게 준비 전시하여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직접 보시고 구입하세요.  
(팁, 초크 30여종 장갑 그림 및 기타 개인용품)

**당구장 중대 천 - 25,000원**  
※ **대대천도 인터넷 가격 보다 저렴 판매**  
(시모니스 고리나 제니스 타키니 아크 등등)

**제주 대리점**    허리우드 당구대, 한발큐, 빌킹큐, 고리나, 은성큐, 코리아큐, 기타 수입대대 및 각종 당구대 총판

**큐수리 공방은 2022년 1월 중순경부터 운영**  
(상·하대 조인트, 선골수리, 팁 부착, 기타수리)

**5만원 이상  
제주도 전지역  
무료 배송**

**산호당구재료사** 대표 **고재철**

주소: 제주 제주시 평전1길 30-1  
TEL. (064) **757-5710, 5488** H·P. **010-3699-3967**